

“군민만 바라본 12년, 함께여서 가능” 남원농업 활성화 위한 소통 나서

심민 임실군수, 12년 군정 마무리... 마지막 간부회의서 공직자들에 감사 전제

심 민 임실군수가 12년간 이어온 군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함께 임실의 변화를 이끌어 온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심 군수는 “지난 2014년, 처음 취임한 이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임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쉬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며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 속에 임실군 최초의 3선 군수로 임기를 명예롭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12년은 결코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다”며 “군민들의 믿음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임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함께한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 군수는 지난 12년동안 임실군이 이뤄낸 굵직한 성과도 되돌아봤다. 육정호 병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탄생시켰고, 임실치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시켰다.

또한,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수산 왕의 숲 자연휴양림 활성화와 사계절 축제인 성공적인 안착 등 임실의 관광자료를 새롭게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심 민 임실군수가 12년간 이어온 군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함께 임실의 변화를 이끌어 온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농업과 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국정전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내며 임실군의 경쟁력과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임실군이 전례 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전국의 핵심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십수 년간 함께 밤 흘리며 군정을 이끌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 군수는 민선8기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하반기 주요 현안과 각종 사업들이 행정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들께서 보내주시신 성원과 사랑에 끝까지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민선8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9기 군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지난 12년동안 함께 임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군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임실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민 군수는 6월 26일 오후 4시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12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하고,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가 임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귀농·귀촌·도시민 유치 정책 성과 인정

순창군, '국민람 엑스포'서 귀농귀촌 우수지자체상 수상

순창군이 국내 대표 박람회인 2026년 국민람 엑스포에서 '귀농귀촌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유치 및 도시민 정착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인정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 정착지원 정책, 도시민 유치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착 환경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상담 중심의 현장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시정장비 지원 △소득 기반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멘토링 △생활 정보 제공 등 초기 정착



부터 안정적인 지역 안착까지 연결되는 순창군만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현장 체험형 상담을 강화해 실질적인 도시민 유치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은 귀농·귀촌을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온 순창군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우수지자체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농작업 재해예방 최선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일수 증가와 농촌 사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업인 건강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용성 있는 농업 안전 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16일 임실군 성수면 구곡마을 경로당에 마련된 농업인 운영실황 예방 교육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장직 인수위, '당선인과 농업인단체 간담회' 가져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1층 회의실에서 '당선인과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측도 남원시장 당선인이 남원농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본격적인 농업 현장 소통에 나선 것으로, 남원농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단체 대표들과 실 효성 있는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남원시 4급 부부,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9개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남원시 농업분야 과장들이 참석해 남원시 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루졌다.

2026년 남원시 농림분야 당초 예산은 총예산의 21.28%인 2,252억 원 규모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한 농업예산 비율(23%~21%)에 대한 단계적 원상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 자리에서 양 당선인은 다가오는 하반기 추경에 필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2027년부터 신규 사업 등 점진적인 농업 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농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논의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올해 총 1,2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상기후 심화와 농작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남원농업의 주요 소득 기반인 포도, 복숭아, 사과, 딸기 등 과수·원에 작물의 기상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한우와 돼지, 가금류 등을 사육하는 1,300여 축산 농가의 폭염 대비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남원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남원시는 전북 평균(6.0%)을 상회하는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6.1%)을 강점으로 삼아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농의 안정적인 유입 및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측도 당선인은 “오늘 수렴된 의견을 민선 9기 농업 정책 수립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고, 예산 확보와 인력 지원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당면 과제들을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1층 회의실에서 '당선인과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측도 남원시장 당선인이 남원농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본격적인 농업 현장 소통에 나선 것으로, 남원농업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별 단체 대표들과 실 효성 있는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남원시 4급 부부,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9개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남원시 농업분야 과장들이 참석해 남원시 농업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루졌다.

2026년 남원시 농림분야 당초 예산은 총예산의 21.28%인 2,252억 원 규모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한 농업예산 비율(23%~21%)에 대한 단계적 원상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 자리에서 양 당선인은 다가오는 하반기 추경에 필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2027년부터 신규 사업 등 점진적인 농업 예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농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논의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올해 총 1,2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상기후 심화와 농작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남원농업의 주요 소득 기반인 포도, 복숭아, 사과, 딸기 등 과수·원에 작물의 기상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한우와 돼지, 가금류 등을 사육하는 1,300여 축산 농가의 폭염 대비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남원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 남원시는 전북 평균(6.0%)을 상회하는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6.1%)을 강점으로 삼아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농의 안정적인 유입 및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 등에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수족구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환자의 등교·등원 중지를 권장하고,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등은 증상 발생 동안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외출 후 손 씻기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고전소설 문학관 '생각씨앗' 참가자 모집

남원시 고전소설 문학관에서는 '2026년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고전문학 인문 프로그램 '생각씨앗' 참가자를 모집한다.

생각씨앗은 어린이들이 고전문학을 쉽고 흥미롭게 접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인문학 프로그램이며, 참가자들이 춘향전, 민복사저포기와 같은 고전과 한자·사자어에 담긴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원고전소설문학관에서 총 8회 운영, 반 별 8명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참여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참가 신청은 6월 23일(화)부터, 프로그램은 기초반과 심화반 별로 선착순 모집하며,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유선전화(063-620-56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영유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 등에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수족구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환자의 등교·등원 중지를 권장하고,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등은 증상 발생 동안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최선의 예방 방법으로, 외출 후 손 씻기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진 순창 전통문화

순창고을대취타, 전북관광 팝업스토어서 순창장류축제 홍보

순창군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전북관광 팝업스토어'에 참여해 순창고을대취타 공연과 함께,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창전통고추장인숙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북관광 홍보 행사로, 수도권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의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순창군은 순창문화원 취타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취타 공연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웅장한 전통 행진음악과 화려한



복식으로 구성된 공연은 순창의 전통 문화 자산을 알리는 동시에 제21회 순창장류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공연과 함께 순창장류축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과 된장,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특히 순창장류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된 '2026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어 세계인이 함께 찾는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